



EU, 그리스 구제자금 특별계좌 신설 검토

오병국 연구원

- 지난 2월 6일 그리스 정치 지도자들이 구제금융의 대가로 더 강력한 긴축을 받아들일겠다고 합의하지 않음에 따라 2차 구제금융 협상이 지연되고 있음.
 - 구제프로그램을 마무리 짓기 위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도 당초 이날 예정됐었으나, 이번 주 후반이나 주말로 연기됨.
 -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유로존의 한 관리는 ‘무질서한 디폴트는 피할 수 있겠으나, 협상 지연은 부정적’이라고 말함.

- 이처럼 협상타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, 유럽연합(EU)은 그리스에 제공하는 새로운 구제자금을 부채를 갚는데 우선적으로 쓰게 하고 나머지는 긴축 이행 상황에 따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.
 - 동 방안은 프랑스와 독일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것으로서 과거처럼 그리스에 구제자금을 모두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크로(escrow) 계좌를 만들어 긴축 이행을 강제하는 것임.
 - 이는 에스크로 계좌에 구제자금을 예치하여 그리스의 기존 부채 상황은 차질 없이 하겠지만, 그리스의 새로운 개혁 요구이행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을 의미함.

- 프랑스의 한 고위관리는 이러한 계획은 유로존 일부 국가뿐만 아니라 유럽연합(EU) 집행위원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그리스의 디폴트(default) 위험을 제거하고, 개혁 이행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언급함.

- 게다가 동 계획에 대하여 ‘예산위원(budget commissioner) 제도보다 더 나은 생각’이라면서 ‘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(it is more acceptable)’이라고 평가함.

- ‘예산 위원’ 제도는 지난달 독일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 채무상환을 우선 시하는 방법이었지만 그리스 재정 주권이 침해될 것이란 우려로 채택되지 않음.
- 그러나 에스크로 계좌 방안은 유럽연합(EU)과 국제통화기금(IMF)이 그리스의 재정 주권을 침해하지 않고 구제자금의 용처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평가함.

(Financial Times, 2/6)